유다서 5절의 본문비평문제 재고찰: 예수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했는가?

Philipp Bartholomä*
번역 김광모(부교수/신약학)

I. 서론

유다서 5절은 몇 가지 본문 문제와 관련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구절의 주어 식별이다. "이것은 유다서 5절을 해석의 열쇠로 간주하는 주요 기초이다."[1] 누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했는가?" 그리고 "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사본의 증거에 따르면 유다서 5절의 주어는 세 개다(아래 도표를 참고하시오): 첫째 독법, "주님"(κύριος); 둘째 독법, "예수"(Ἰησοῦς); 셋째 독법, "하나님"(θεός). 이 독법들에는 관사가 있거나 없다. 이 독법들 중 "예수"(Ἰησοῦς)는 가장 어려운 독법이며, 많은 연구자들은 이 독법이 어려운 독법이라고 제안하곤 했다. 왜냐하면 예수를 출애굽 사건과 광야 세대를 다루는 능동적 참여자로 보기 때문이다. F. J. A. 호르트(F. J. A. Hort)는 이 독법을

---

* 필립 바돌로매는 M.Div. equiv.(Freie Theologische Akademie Giessen, Germany), M.A.(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the University of Gloucestershire, UK), S.T.M.(Dallas Theological Seminary), Ph.D.(New Testament and Patristics,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Leuven, Belgium)를 취득했다. 그는 본고를, 다니엘 B. 왈리스(Daniel B. Wallace)가 2005년 가을학기에 달라스신학대학원에서 신약성서 본문비평을 지도할 때 연구보고서로 제출했고, 2006년에는 미국 복음주의신학회 남서부지역학회에서 개정해 발표했으며, 또한 같은 해 달라스신학대학원의 3회 연례 학술 콘퍼런스에서도 발표했다.

[1] Carroll D. Osburn, "The Text of Jude 5," *Bib* 62 (1981): 111.

"심각한 실수"로 간주한다.[2] 브루스 M. 메츠거(Bruce M. Metzger)의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은 이 구절에 관해 "위원회 대부분이 그 독법을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진술한다.[3] 따라서 [ὁ] κύριος 독법이 NA[27]과 UBS[4]는 물론이고 많은 번역본들(NKJV, NASB[95], NIV, TNIV, NLT, CEV, HCSB)에서 선호된다.[4] 최근 리차드 보캄(Richard Bauckham)과 찰스 랜든(Charles Landon)은 전통적인 견해인 [ὁ] κύριος 독법을 지지했다.[5] (지지자가 거의 없는) 가장 어려운 독법인 Ἰησοῦς 독법은 캐롤 오스번(Carroll Osburn)이 제안했지

---

[2] F. J. A. 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Cambridge, 1882), 106 (부록). 그는 "원본에는 ὁ만 있었으며, ΟΤΙΟ는 ΟΤΙΙΣ 아마도 ΟΤΙΚΣ였다."라고 판독했다. 그러나 사본상의 증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그," 곧 추측상 교정은 거절되어야 한다.

[3]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ition (Stuttgart: Derman Bible Society, 1994), 657(역자 주.,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그러나 [ὁ] κύριος 독법이 {D} 등급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D}등급은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아주 어려운 것으로 간주함을 뜻한다 [14*]). 메츠거와 비크렝(Allen Wikgren)은 소수 지지자로서 Ἰησοῦς독법을 선호한다. UBS 2판도 Ἰησοῦς를 본래 독법으로 표기한 것은 흥미롭다.

[4] [ὁ] κύριος 독법은 티센도르프, 폰 소덴, 호르트, 바이스, 메르크의 지지를 받았다.

[5] Richard Bauckham, *Jude and the Relatives of Jesus in the Early Church* (Edinburgh: T. & T. Clark, 1990), 307-12; 참고. Richard Bauckham, *Jude, 2 Peter*, WBC 50 (Waco: Word, 1983), 48-49; Charles Landon, *A Text-Critical Study of the Epistle of Jude*, JSNTSup 135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70-77. [ὁ] κύριος 독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M. Black, "Critical and Exegetical Notes on Three New Testament Texts: Hebrews 11.11, Jude 5, and James 1.27," in *Apophoreta: Festschrift für Ernst Haenchen zu seinem siebzigsten Geburtsag* (Berlin: Töpelmann, 1964), 44-45; Karl Hermann Schelkle, *Die Petrusbrief, der Judasbrief*, HThK 13 (Freiburg: Herder, 1980, 154; Anton Vögtle, *Der Judasbrief, Der 2. Petrusbrief*, EKK 22 (Zürich: Benziger, 1994), 36-40; Daniel J. Harrington, *Jude and 2 Peter*, Sacra Pagina 15 (Collegeville: Glazier, 2003), 195; Thomas Schreiner, *1, 2 Peter, Jude*, NAC 37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3), 443-45.

만, 이 독법은 최근에 비로소 주요 텍스트 편집 혹은 번역에 반영되고 있다. (UBS[1/2]과 라흐만[Lachmann]과 보버[Bover]는 예외이다.)[6] 그러나 ESV와 NET가 Ἰησοῦς 독법에 근거하여 유다서 5절을 번역함으로 상황은 변했다. 최근 동향은 증거의 재고찰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합리적인 절충주의 견지에서 유다서 5절의 특별한 본문 문제에 대한 외증과 내증을 새롭게 고찰하는 것이다.

II. 외증(External Evidence)

A. 본문 비평 도표(Text-Critical Charts)

독법 1: [ὁ] κύριος

	알렉산드리아 계열		서방 계열	비잔틴 계열	기타
	주요자료	이차자료			
파피루스					
언셜	ℵ [IV]	C* [V] Y [IX/X]		K [IX] L [VIII]	
미너스쿨		1175 [XI] 1292 [XIII] 1409 [XIV] 1852 [1306] (all		Byz [IX-XVI] 175 [X] 216 [1358] 255 [XII] 337 [XII]	104 [1087] 181 [XI] 307 [X] 326 [XII] 429 [XIV]

[6] Osburn, "The Text of Jude 5," *Bib* 62 (1981). 제가 알고 있기로는 Allen Wikgren, "Some Problems in Jude 5," in *Studies in the History and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Honor of Kenneth W. Clark*, ed. Boyd L. Daniels and M. Jack Suggs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67), 147-48; Jarl Fossum, "Kyrios Jesus as the Angel of the Lord in JUde 5-7," *NTS* 33 (1987), 226-43; and Jerome Neyrey, *2 Peter, Jude*, AB 37C (New York: Doubleday, 1993), 61-62 등은 Ἰησοῦς 독법을 선호한다.

		according to Aland-Alan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383 [XIII] 460 [XIII] 489 [1316] 632 [XII-XIV] 917 [XII] 927 [1133] 1245 [XII] 1311 [1090] 1518 [XV] 1717 [XIII] 1738 [XI] 1765 [XIV] 1829 [XI] 1836 [X] 1857 [XIII] 1874 [X] 1890 [XIV] 1898 [X]	436 [XI/XII] 630 [XIV] 945 [XI] 1067 [XIV] 1505 [XII] 1611 [X] 1844 [XV] 2138 [1072] 2147 [XI]
성구집					ℓ 593[XV]
번역본				syr^{h}[616]	
교부					Ephraem [† 373] John Damascus [before 754] Ps-Athanasius [VIII] Oecumenius [VI] Theophylus [† 412]
기타					

독법 2: [ὁ]’Ιησοῦς

	알렉산드리아 계열		서방 계열	비잔틴 계열	기타
	주요자료	이차자료			
파피루스					
언셜	B [IV]	A [V]			
미너스쿨	81 [1044] 1241 [XII]	33 [IX] 322 [XV] 323 [XII] 1739 [X] 1881 [XIV] 2344 [XI]		424 [XI]	6 [XIII] 88 [XII] 915 [XIII] 2298 [XII]
성구집					
번역본	(cop^{sa}) [III-VII]		it^{ar} [IX]		vg [IV/V][7] (cop^{bo}) [IX-XII] eth [VI] $arm^{ed\,mg}$
교부		$Origen^{1739\,mg}$ [253/254] Didymus [†c.395][8]	Jerome [† 420]		Cyril [† 444] Bede [735]
기타					

[7] vg가 알렉산드리아 계열인지 혹은 서방 계열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어서, “다른” 계열로 분류한다.

[8] 디디무스(Didymus)는 다른 두 가지 독법을 증거한다. Did^{lat307}은 ’Ιησοῦς이며(티센도르프의 비평장치, 혹은 보버의 비평장치), $Did^{tri\ 1,19}$는 κύριος ’Ιησοῦς이다. 이것은 폰 소덴이 그의 비평장치에 언급한 독법이다. 그러나 두 가지 독법이 예수를 주어로 분명히 언급하기에 디디무스를 독법 2에 분류하는 것이 최상이다.

독법 3: [ὁ] θέος

	알렉산드리아 계열		서방 계열	비잔틴 계열	기타
	주요자료	이차자료			
파피루스					
언셜					C^2[VI]
미너스쿨	1243 [XI]			5 [XIV] 442 [XIII] 1845 [X]	623 [1037] 1846 [XI]
성구집					𝓁44 [XII] 𝓁596 [1146]
번역본					vg^{mss}[?] arm [V] geo [V] syr^{ph}[507/508] (slav) [IX]
교부	$Clement^{vid}$ [before215]		Lucifer [†371]		
기타					

또 다른 독법들도 있다.

독법 4: κύριος Ἰησοῦς - 1735 [X]; 𝓁591[XI](both “Byzantine”); $Did^{tri1,19}$

독법 5: θεὸς Χριστός - P^{72} [III/IV] (“other”)

도표에 언급한 다음의 사본들은 NA^{27}과 UBS^{4}에는 언급되지 않고, 티센도르프, 메르크, 보퍼만이 언급한다.

1. [ὁ] κυριός: 630. Ps-Ath. Thphyl. Oec. (Tischendorf only); 175. 632. 1717. 1857. 1890. John Dam. (von Soden only); 181. 216. 307. 489. 1518. 1829. 1836. 1874. 1898. (Merk only); 383. 429. 913. 1765. 1852. 2147. (von Soden,

Merk); 104. 255. 326. 460. (von Soden, Merk, Bover – von Soden has 255 as a θεός reading); 337. 1738. (Merk, Bover); 927. 1311. (von Soden, Bover); Ephr (Tischendorf, Bover).

2. [ὁ] Ἰησοῦς: 6. (Tischendorf only); 88. (von Soden, Merk, Bover); Did. (Tischendorf, Bover).
3. [ὁ] θεός: 442. (Tischendorf only); 5. (Merk only); 1845. (von Soden, Merk).

[때로 메르크의 인용방식은 그룹 중 하나의 사본 사슬이 특별한 독법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그 증거가 다른 편집본 자료에 의해 확증되는 경우 도표에 인용했다.

이 점 외에, 메르크는 [ὁ] κυριός 독법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ὁ] Ἰησοῦς를 를 선호하여 분명히 열거하는 사본들 외에 유다서 5절에 인용한 모든 사본들은 그의 텍스트(예. [ὁ] κυριός)를 지지한다.]

B. 외증 평가(Discussion of External Evidence)

외증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독법(독법 4와 독법 5)은 시작부터 배제한다. κύριος Ἰησοῦς 독법은 디디무스(Did$^{tri\ 1,19}$) 그리고 몇 개의 후기 사본들(1735 [X]; 𝔐 591 [XI])에만 있으며, 서로 다른 독법의 융합이기 때문이다. θεὸς Χριστός 독법은 3/4세기 것인 P^{72}의 지지를 받지만, 이 독법이 본래의 독법이 되려면 이 독법에 대한 다른 증거들을 제시해야 한다.[9]

외증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낮은 독법은 [ὁ] θεός이다. C의 2차 교정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1234) 외, 비쟌틴 계열의 미너스쿨 몇 개(5, 442, 1845, [623, 1846])만이 그리고 한 명의 라틴 교부 그리고 초기 몇 개의 번역본이 이 독법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독법은 전

[9] Metzger, *Commentary*, 657.

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알렉산드리아 계열로부터 유입했음에 분명하다(아마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통해서 유입했을 것이다).[10]

또 다른 두 가지 독법과 관련하여 말하면, 외증은 독법 2, 곧 [ὁ] Ἰησοῦς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이 계보적으로 견고하지 않지만 독법 2가 주요 알렉산드리아 텍스트의 믿을 만한 사본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초기의 중요한 알렉산드리아 언셜(A, B)와 많은 미너스쿨(33, 81, 322, 323, 1241, 1739, 1881)이 지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ὁ] Ἰησοῦς 독법은 3세기 중반의 증거도 있다(Origen^{1739mg}). 초기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의 강한 지지를 받는 이 독법은 [ὁ] Ἰησοῦς가 가장 초기 독법임을 시사한다. 독법 1, 곧 [ὁ] κυριός은 비잔틴 텍스트의 강한 지지에 의존하지만, 알렉산드리아 계열을 대표하는 몇 개의 사본들에서도 발견됨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초기 언셜인 ℵ과 (두 기원으로부터 전수한) C* 그리고 후기 사본인 Ψ이다. 그리고 일부 초기 교부들(Ephraem, Theophylus)은 이 독법이 초기에 존재한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ὁ] Ἰησοῦς 독법은 초기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요 알렉산드리아 자료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ὁ] κυριός를 지지하는 2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 증거가 비잔틴 영향을 받은 흔적은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ὁ] Ἰησοῦς 독법은 초기 독법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이 독법은 처음 몇 세기에 이미 널리 확산되었다. 이집

---

10 클레멘트에게는 θεός 독법이 있었겠지만 그의 텍스트가 서신 문맥에서 발췌한 유다서 5절의 자유로운 인용이라고 간주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독법은 클레멘트에게 알려진 텍스트를 대표하지 않는다. (클레멘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Osburn, "The Text of Jude 5," 109를 참고하시오.) 필자가 알기로는 F. Spitta, *Der zweite Brief des Petrus und der Brief des Judas* (Halle: Verlag der Buchhandlung des Waisenhauses, 1885), 324와 Sakae Kubo, *P^{72} and the Codex Vaticanus*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1965), 141이 본래 독법이 θεός였다고 주장한다.

트/북아프리카와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Jerome, Bede [although later])에 확산되었다. 또한 (제롬의 벌게이트 외에도 Sahidic과 후기 에티오피아 번역본 등) 초기 번역본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지리적 다양성은 [ὁ]'Ιησοῦς 독법의 우선성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논증이다.

필자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계보적 견고성이 완전하지 않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가진 개연적인 이른 연대의 견지에서 그리고 [ὁ]'Ιησοῦς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들의 지리적 다양성의 견지에서, 독법 2를 외증적으로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III. 내증(Internal Evidence)

A. 필사적 개연성(Transcriptional Probability)

세 개의 독법 모두가 신성한 이름의 약자 표기(*nomina sacra*)한 사실의 견지에서, 비의도적 변경이라는 말로 다른 독법들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전통적으로 있었다. 예를 들면, UBS 위원회의 다수는 필사자가 본래의 $\overline{\text{ΚΣ}}$를 $\overline{\text{ΙΣ}}$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 필사상 간과의 견지에서 'Ιησοῦς 독법의 기원을 설명했다.[11]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K와 I는 공통적으로 아래로 수직 긋기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약성경 사본에서 본래 κυριός가 'Ιησοῦς로 대체된 경우(눅 7:13; 10:41; 13:15; 22:61) 그리고 θεός로 대체된 경우(행 12:11; 롬 14:4; 고전 7:17; 살후 3:3; 유 9)가 몇 차례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에서 변화는 정황적 혹은 신학적 이유로 설명된다(의도적인 것으로 이해된다!).[12] 혼동으로 유다서 5절

---

[11] Metzger, *Textual Commentary*, 657.

[12] κυριός가 주격으로 사용된 구절만이 검토되었다. 정황 혹은 신학적 이유로 변화된 특별한 예는 눅 13:15; 롬 14:4; 유 9이다.

의 다른 독법들을 설명하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 첫째, (Κ̄Σ̄ = κύριος에서) Κ와 (Θ̄Σ̄ = θεός에서) Θ는 형태가 많이 달라 쉽게 혼동되지 않는다. 둘째, C의 두 번째 교정자에 의한 변화는 분명히 의도적이다. 따라서 필사자가 κύριος 독법에 불편함을 갖고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아래를 참고하시오). 게다가 신성한 이름에 대한 비의도적 혼동이 세 가지 독법 중 어떤 것이라도 본래 독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물론 κύριος 독법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13]). 따라서 혹자는 이 지점에서, 필사적 사고가 다른 독법을 만들 수 있었지만 전적으로 우연한 필사적 오류의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실제로, 자세히 검토하면 이독법은 의도적 변경으로 판단된다. 이독법의 분포는 필사자들이 보다 특별한 용어 'Ιησοῦς를 덜 특별한 용어인 κύριος 혹은 θεός로 대체했음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고 또 광야에서 그들의 일부를 죽인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Ιησοῦς 독법을 강조하는 전제는 "창조활동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전(前)-성육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였으며, 육신을 입고 있을 당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의 성육신 이전 구속 세기에 대한 위대한 역사적 모형과 연결되어 그에게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14] "예수"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이름으로 간주되기에, 어떻게 필사자들이 "예수"에 대한 개

---

[13] 예. Metzger, *Textual Commentary*에서 필사상 간과의 오류는 한 방향에서만 언급된다(예. ῙΣ̄는 Κ̄Σ̄로 간주된다). θεός 독법은 언급되지 않는데, (강한 외적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14] Peter Russell Jones, *The Epistle of Jude as Expounded by the Fathers*, Texts and Studies in Religion 89 (Lewiston: Edwin Mellen Press, 2001), 21.

념을 선재란 분은 물론이고 사람으로 간주했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래 독법이 κύριος였다면 필사자의 특정 그룹이 보다 특별한 Ἰησοῦς를 첨가하여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셈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필사자들이 보다 문제있는 Ἰησοῦς를 주 그리스도에게 전형적으로 사용된 이름인 κύριος로 변경하여 선재한 주님에 대한 부적절한 인간 칭호라 생각한 것을 피했다고 제안하는 것이 보다 개연적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어떤 역할을 한 유일한 신학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증거는 텍스트 문제의 일부가 처음 몇 세기의 기독론 논쟁의 배경으로 보인다는 제안이 가능하며, 예수의 선재에 대한 사상을 일반적으로 피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이것은 θεός 독법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θεός는 구약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활동하시는 분으로 나타내며, 선재한 아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제거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선재 개념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유다서 5절에서 Ἰησοῦς를 κύριος로 변경은 전체 진술을 더 애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4절(κύριον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의 견지에서 κύριος 독법은 예수를 고려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언셜 C에서 (κύριος에서 θεός로) 필사적 교정은 교정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 애매함을 알고 진술에서 기독론적 의미를 제거하려 했다는 가정으로 설명된다. 고린도전서 10:9에 있는 어느 정도 비슷한 텍스트 문제는 이런 종류의 변경이 다른 기독론적 개념의 견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그들의 일부가 [광야에서] 시험하여 뱀들에게 멸망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참고, 역자 번역).[15]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텍스트 이독법들은 "주님"과

---

15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Χριστόν 독법을 선호하는 본문 비평 주장은 Metzger, *Textual Commentary*, 494를 참고하시오. 더 자세한 논의는 *NET/Novum Testamentum Graece Diglot Edition*, 852-53을 참고하시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독법을 가진 이 구절이 3세기 기독론 주장의 증거로 사용된 것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16] 필사자들을 자극하여 "주" 혹은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0:9에 첨가하게 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유다서 5절도 마찬가지이다.)[17] 이것이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이지만, 다음에 제시하는 한정적인 고찰들을 고려해야 한다. 선재 개념과는 별도로 유다서 5절의 기독론적 구절에서 신학적 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물론 Ἰησοῦς를 κύριος 혹은 θεός로 변경을 함축한다), 동시에 Ἰησοῦς 독법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려는 후기 반-양자론적 경향에 그 기원을 두었다는 점도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설명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다서 5절을 (어떠한 방향에서든지 신학적 변경을 한) 기독론적 논쟁의 핵심점으로 삼는 것은 그 서신의 정경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다.[18]

---

16 참고. Carroll D. Osburn, "The Text of 1 Corinthians 10:9,"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ts Significance for Exegesis: Essays in Honor of Bruce M. Metzger*, ed. Eldon J. Epp and Gordon D. Fee (Oxford: Clarendon, 1981), 201-12. 그는 Χριστόν 독법을 가진 고린도전서 10:9이 그리스도의 선재에 대한 사모사타의 바울의 비정통적 견해를 정죄하기 위해 주후 268년에 감독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17 고린도전서 10:9과 유다서 5절에서 외증의 비교는 인상적이다. B와 33은 유다서 5절에 "예수"를 그러나 고린도전서 10:9에 "주님"을 기록한다. A와 81은 유다서 5절에 "예수"를 그러나 고린도전서 10:9에 "하나님"을 기록한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그런 사본들 (혹은 그것의 모본들)이 기독론적 이유로 고린도전서 10:9에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유다서 5절에서 "예수"에 대한 그들의 증거는 훨씬 더 중요하다. 둘째, 필사자들은 다른 경향을 가진 다른 사본들을 보고 필사했을 것이다. 셋째, 차이는 비슷한 신명에 대한 비의도적 변경 때문이다. 이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비의도적 변경에 관한 언급을 참고하시오.)

18 제시하는 현대 유추는 이 점을 예시할 것이다. *NET Bible New Testament*의 본문 비평 결정의 책임자인 대니얼 B. 왈리스(Daniel B. Wallace)는 Ἰησοῦς를 유다서 5절의 주어로 결정한 것은 그들이 내린 가장 대담한 결정의 하나였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럼에도 누구도 비평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왈리스는 누구도 유다서를 실제로 읽지 않

일부 학자들은 다른 근거에 대한 필사적 환경을 설명하려 한다. 그들은 κύριος가 다른 독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독법이라고 주장한다. Ἰησοῦς와 θεός은 κύριος 독법의 본질적 애매성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19] 이런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필사자가 κύριος를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고 그의 선재를 강조하고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0:9에서처럼 기독론적 칭호를 거의 확실하게 사용했거나, 혹은 그의 이독법을 4절의 문맥과 조화를 시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Ἰησοῦς가 더 어려운 독법이며, 필사자는 그것을 첨가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활동했다고 가정하는 Ἰησοῦς 독법이 가장 어려운 독법이며 필사적 개연성의 견지에서 변경을 시도했다고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이다.[20] 이 독법은 적어도 두 가지 가능성 있는 면에서 어려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이름인 "예수"를 부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선재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다.) 필사자가 5절의 주어를 Ἰησοῦς로 변경한 이유를 알기 어렵지만, Ἰησοῦς를 본래 독법으로 간주하는 또 다른 두 개의 독법의 생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일 수 있다.[21]

는다고 (다소 아이러니하게) 말한다.

[19] 참고. Bauckham, *Jude, 2 Peter*, 43; Landon, *A Text-critical Study*, 75.

[20] 이 부분에서, 유다서 5절에 있는 또 다른 본문 비평적 문제의 관계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ὅτι절이 아니라, πάντα앞에 ἅπαξ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다(*Net Bible/Novum Testamentum Graece Diglot Edition*, 882; NA[27]을 참고하시오). 그렇다면 ℵ, C*, Ψ, 630, 그리고 1505가 가치가 낮은 ἅπαξ 독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따라서 이런 사본들이 어순을 변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A, B, 33, 8 기타 등에는 가치가 높은 ἅπαξ 독법 그리고 Ἰησοῦς 독법이다.] 일반적으로 필사자들은 관사를 첨가하는 경향을 가졌기에 우리는 관사가 없어도 문장의 주어로 이해해야 한다.

B. 내재적 개연성(Intrinsic Probability)

유다서 5절의 독법들에 대한 내재적 개연성을 살필 때 서론에 언급한 논증, 곧 'Ιησοῦς가 가장 어려운 독법이며 또한 불가능성의 요점에도 실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평가해야 한다. 유다가 5절에 'Ιησοῦς를 썼다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가?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유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언급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Ιησοῦς는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와 동의어인 헬라어이기 때문이다(참고. 행 7:45; 히 4:8). 그러나 문맥에서 'Ιησοῦς를 단지 "여호수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6절은 5절과 동일한 주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했으며 그의 증거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에 기여했겠지만(5절), 천사들을 영원한 사슬에 결박한 것은 그에게 돌릴 수 없다(6절). 이런 견지에서 'Ιησοῦς의 모형론적 용례(예.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가 보다 개연적으로 간주되었다(예. Alle Wikgren). 왜냐하면 이런 일반적인 모형론 개념은 바나바 서신(12:8-10)과 순교자 저스틴(*Dial.* 75.2; 113.2-3 et al.) 등의 초기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22] 이 경우 유다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여호수아에 대한 애매하지만 아마도 공동적일 수 있는 언급을 제공한다. 이런 해석은 유다가 그의 일반적 용례인 'Ιησοῦς Χριστός와 대조적인 'Ιησοῦς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유 1, 4, 17, 21, 25)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κύριος 독법

---

[21] 고등기독론의 견지에서 신학적 경향에 의한 동기부여는 아니지만 필사자는 LXX의 출애굽기 12:51 그리고 민수기 14:34-37에 일치하여 'Ιησοῦς를 κύριος와 동일하게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번은 "κύριος와 θεός가, 5절 이하 구절들이 서신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인용되었듯이 교부들의 관행으로 인해 'Ιησοῦς로 대체되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The Text of Jude 5," 113).

[22] 참고. Wikgren, "Some Problems in Jude 5," 148.

의 애매한 인물을 이해하는데 일말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것은 "주님, 예수"를 고려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함으로 "여호수아-독법"에 대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유다가 여호수아-모형론을 사용한다는 가능성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의구심을 남긴다. 첫째, 이미 살펴보았듯이 5절의 주어에 돌린 활동 중 몇 가지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를 직접 언급(4절)한 유다가 한 걸음 물러나, 예수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채택했을 것 같지 않다. [흥미롭게도 챨스 랜던은 여호수아-예수 모형론을 κύριος 독법의 우선성을 지지하는 주용 논증으로 사용할 때 리챠드 보캄의 입장을 따른다. 그들은 'Ιησοῦς가, "2세기에 일반화된 여호수아-예수 모형론"[23]에 영향을 받은 필사자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생각했다. 필사자는 출애굽 언급에 의해 그런 삽입에 관심을 두었을 것이지만, "진술이 계속될 때 만나는 함정은 주목하지 못했다(예., 6-7절까지 보지 못함)."[24]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모형론을 생각할 정도로 신중한 필사자가 그의 삽입기법(interpolation)의 부적절성을 간과했을 리 없다. 또한 κύριος를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한 정통적인 필사자가 여호수아-예수에 대한 언급을 강등시켜 결국 하등 기독론을 제시했을 개연성은 적다.] 둘째, 그렇다면 유다는 여기서 무슨 방식으로 'Ιησοῦς를 사용했겠는가? "예수" 언급(5절)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만큼 이상하지도 비병행적이지도 않다. 오스번은, 2세기 문헌에서 구약성서 역사에 그리스도 참여는 일반적 특징이라고 관찰했다. 순교자 저스틴의 *Dial*, 120.3은 "예수"를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분"으로 특별히 언급한다.[25] 오스번은, 베드로전서 3:22과 에녹서

---

[23] Bauckham, *Jude and Relatives of Jesus*, 309; Landon, *A Text-Critical Study*, 72-73.

[24] Bauckham, *Jude and Relatives of Jesus*, 309.

[25] Osburn, "The Text of Jude 5," 112.

69:26-29, 곧 "인자는 착고에 매인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26]의 견지에서 서술된 6절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타락한 천사들을 옥에 가둔 것을 신뢰한다. 그리고 오리게네우스(1739[mg])와 디디무스의 초기 증거는 'Ιησοῦς 독법의 암시에 분명히 좋아한다. 또한 구약성서에서 그리스도의 선재라는 일반적 개념은 교부들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후기 전승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58과 히브리서 11:26의 구절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0:1-11의 출애굽 문맥에도 있다.[27] 그러나 보캄의 주장, 곧 유다는 5절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언급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고린도전서의 견지에 기초한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0:4, 9은 전적으로 모형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는 모형론적 해석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격노케 하였지만, 바울의 독자들의 유사한 행동은 주 예수를 시험하여 격노케 했다"고 이해한다.[28] 보캄은 유다서 5-7절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한다. 곧, 5절에 기록된 κύριος(그는 이것을 독래 독법으로 간주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며, 재판관으로서 그의 역할은 이제 그리스도가 행사하는 주권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나 필자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난제 구절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임재하고 참여한 실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29]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결국 멸당된

---

[26] Ibid.

[27] 이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던(James D. G. Dunn, *Christology in the Making: A New Testament Inquiry into the Origins of the Doctrine of the Incarnation* [London: SCM, 1980], 184-87)은 바울 문헌에는 그리스도의 선재 교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참고, 그러나 김세윤(S. Kim, *The Origins of Paul's Gospel*, WUNT II/4 [Tübingen: Mohr, 1984])은 바울이 실제로 이 교리를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던은 후기 신약성서 문헌(요 1:1-18; 히 1:1-4)에 그리스도의 선재에 대한 언급을 인정했다. 따라서 그의 입장도 유다서에 선재 개념이 있음을 용인한다.

[28] Bauckham, *Jude and the Relatives of Jesus*, 312.

것을 묘사하는 고린도전서 10:9(확실히 유다서보다 앞선 전승)에서 다소 병행구절의 견지에서 말하면, 유다서 5절의 주어가 주님 예수이며 그리고 유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파멸"을 그에게 돌렸다고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30] Ἰησοῦς 용례가 다소 시대착오적이지만 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언급으로 생각했을 것이다.[31] 예수를 선재한

---

29 참고,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447-49; Ben Witherington III,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Grand Rapids: Eerdmans, 1995), 217-22; Jürgen Habermann, *Präexistenzaussagen im Neuen Testament* (Frankfrurt: Peter Lang, 1990), 215-23. 하베르만은 그의 논의를 다음의 말로 결론짓는다. "요약적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 시점, 후에 선재한 그리스도의 임재와 활동을 고린도전서 10장은 실제로 전제한다."(필자 역)

30 Osburn, "The Text of Jude 5," 112는 진술의 둘째 부분, 곧 예수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는 2세기 문헌에서 볼 수 있지만 그가 한 언급은 그의 요점을 실제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Vögtle, *Judasbrief*, 37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이 "예수"에게 결코 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Ἰησοῦς 독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증거의 견지에서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텍스트를 Ἰησοῦς로 변경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Fossum, "Kyrios Jesus as the Angel of the Lord in Jude 5-7," 228-33은 유다서 5-7절에 기술된 모든 활동들이 여호와의 사자, 곧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분에게 돌려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예., Justin, *Dial.* 56.22 et al.). 포숨은 이것은 유다서 5-7절의 배경으로 이해한다.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모든 개념이 거부되지만(포숨에 대한 비판은 Bauckham, *Jude and the Relatives of Jesus*, 310-11을 참고하시오), 포숨의 주장은 Charles A. Gieschen, *Angelomorphic Christology: Antecedents & Early Evidence*, AGJU 42 (Leiden: Brill, 1998), 325-29의 직접적인 지지를 받는다. 기셍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9에서 그리스도를, 그가 (지혜서 18장 14-25절에 근거하여) 고린도전서 10:10의 "파괴자"로 동일시한 여호와의 사자로 이해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타당하며 바울이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0자에 기술된 심판과 관련한 여호와의 사자로 간주했다면, 이 구절은 유다서 5절, 곧 예수가 재판하여 심판하는 분으로 기술된 구절에 보다 근접한 병행구절이다.

31 우리에게도 없는 정확한 언어적 표현을 유다에게 기대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 다음의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2년 전에 아내를 데리고 시내에서 가장 비싼 음식점에 갔다." 물론 이 일은 그녀가 아내가 아니라 애인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나의 동료 이 유비를 제안해 준 Michael J. Svigel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구약성서 사건에 참여한 분으로 간주하는 초기 기독교 전승의 지속성 견지에서, "1세기 중반에(혹은 유다서 기록 연대로 보다 설득력 있는 60년대 후반에), 유다가 5절에 Ἰησοῦς를 기록하지 않아야 할 연역적 추리는 분명히 없다."[32]

사실 5절이 예수를 언급한다는 문맥의 증거가 있다. 이전 문맥에서 유다는 그의 독자들에게 "유일한 주재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τὸν μόνον δεσπότην καὶ κύριον ἡμῶν Ἰησοῦν Χριστὸν)"를 부인하면서도 그들의 공동체에 침입했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며 권면한다(4절). 관사-명사-και-명사 구조는 그랜빌-샤프 법칙(Granville-Sharp rule)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명사들이 단수이며 사람이고, 고유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δεσπότην과 κύριον이 동일한 지시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한다는 말이다.[33] 명사 δεσπότην가 신약성서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몇 차례 적용되기 때문에(참고. 눅 2:29; 행 4:24; 딤후 2:21; 계 6:10), 그리스도에게 부여하는 것은 고등기독론을 반영하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통치를 강조한다. 이런 높임의 표현 견지에서, 동일한 지시대상을 5절의 주어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 유다서 5절에서 "예수"를 언급함은 문맥적으로 유일하신 주재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유다서 5-7절을 선재한 재판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묘사로, 그래서 독자들이 4절에 언급된 사람들, 곧 민수기 14:29-37에

---

[32] Osburn, "The Text of Jude 5," 112. 게다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κύριος가 유다서 5절에서 독래 독법이라면 필사자가 κύριος를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잘못 이해했다면 Ἰησοῦς만을 추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유다가 예수에 대해 κύριος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함축한다. (보캄은 유다서 초기 주석에서 이 점을 용인했다.) 그러나 그가 이 개념을 염두에 두었다면 본래 독법은 Ἰησοῦς일 수 있다.

[33] 그랜빌-샤프 법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270-78을 참고하시오.

서술된 사건들에 확인할 수 있듯이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을 따르지 않도록 권면하는 함축적인 경고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34]

'Ιησοῦς 독법을 필사적 개연성의 견지에서 더 어려운 독법이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활동한 예수에 대한 언급이, UBS 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인명 "예수"의 용례가 다소 두드러지지만 선재한 그리스도와 출애굽의 관련은 신약성서에서 그리고 2세기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예수를 높임받은 재판관으로 묘사는 유다서 문맥에 아주 적절하다. 또한 저자가 'Ιησοῦς만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Ιησοῦς Χριστός를 사용한다는 관찰은,[35] 'Ιησοῦς가 희박한 독법임을 항상 제시하지 않는다. 유다가 변경시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36] 필사자가 저자의 문체와는 다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독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개연성이 더 낮다.

IV. 결론

많은 비평학자들은 외증을 근거로 'Ιησοῦς 독법을 본래 독법으로 인정할 것이다. 메츠거와 비크렌은 "비평원칙은 'Ιησοῦς 독법을 채택한다. 이 독법은 사본과 번역본의 증거에서 최상의 독법으로 인정된다."라고 진술한다.[37] 많은 학자들은 'Ιησοῦς 독법이 가장 어려운 독법이

---

[34] Osburn, "The Text of Jude 5," 113.

[35] 이것은 'Ιησοῦς 독법을 반대하는 랜던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이다(*A Text-Critical Study*, 73-74).

[36] 결국 저자의 문체에 기초한 이 주장의 가치가 유다서가 사소한 자료를 적절한 경우에 제공한다는 사실로 심각하게 상대화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 Metzger, *Textual Commentary*, 657. 챨스 랜던이 최근에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κύριος 독법을 지지한 이유는 그가 철저한 절충주의에 기초하여 연구한 사실과 관련한다(예., 외증에 거의 무게를 두지 않는다).

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필사적 개연성이 ’Ιησοῦς 독법을 본래 독법으로 선호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독법이 너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필자는 본고에서 내재적 개연성의 견지에서 ’Ιησοῦς 독법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독법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했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4절 그리고 신약성서와 초기 기독교 문헌의 견지에서 이 독법이 전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내증이 ’Ιησοῦς 독법을 본래 독법으로 결코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한다. 이 점은 ’Ιησοῦς 독법을 보다 좋은 독법으로 지지하는 외증과 일치한다.

’Ιησοῦς 독법이 유다서 5절의 본래 독법이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재를 부각시킨다. 또한 심판을 주도하는 분으로서 예수의 칭호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권자로 기술되는) 4절과 잘 어울리며, 그래서 그의 신성을 함축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두 구절을 고려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를 강력히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부차적이지만 본문-비평의 결정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다소 기여한다. 베드로후서 2:4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슬에 결박시키는” 분이다. “예수”가 유다서 5-7절의 주어라면 동일한 활동은 그에게 돌릴 수 있다. 두 서신 중 어느 것이 먼저 쓰인 것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베드로후서가 먼저 기록되었으며 유다서가 다음에 지시 대상을 “예수”로 특정화했다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다른 설명보다 설득력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격상된 기독론 때문이다. 따라서 유다서 5절에서 ’Ιησοῦς 독법을 본래 독법으로 선호하는 것은 베드로후서의 우선성을 지지하는 부가적 논증이다.